

불교는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심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상선원 0411-734-2680 대전 논산시 인성면 송정리

법어 조대 석천 스님 한산사 주지

"생명을 풀어주고 살려주는 그 순간에 보살심의 씨앗이 맺히고 인연가는 그 씨앗에서 즐거기가 나고 일이 들고 열매가 익습니다."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여 1700공안을 다 열어버리듯 오직 하나의 자기됨에 집착하면 자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감로사 조계사의 계율 강좌

"나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나의 가르침인 계율(戒律) 뿐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계율 스승으로 삼으라."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계율을 스승 삼으라 하셨던 부처님의 사자후는 세간과 출세간을 막연하고 혼탁해진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계율 스승상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탁해진 세

1888의 경우 4개월 과정 동안 계율이 바로 서야 나라와 사회가 바로 선다고 했던 자운스님의 뜻을 받들어 영산율원장인 철우스님, 혜홍스님, 파계사 주지 우스님 등이 불자들의 기본 계인 삼귀의계, 오계 등 계율의 의미와 실천 덕목을 꼼꼼히 가르친다. 감로사불교대는 이 과정을 마친 후 계율 심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팔관계, 십계, 대승보살계 등 보다 확대된 계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을 청정하게 가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계율과 수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불교교양대학이 문을 열어 관심을 모은다. 한국 근세 불교의 이념을 물려받은 자운스님이 중창하고 40여 년간 주석했던 부산 감로사가 계율과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12일 감로사불교교양대학장 혜홍을 개강하는 것과 함께 조계사에서 5월말부터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론을 개강한다는 소식이 다. 감로사불교대 051-803-

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조계사 02-720-1390의 '계율론' 강좌 또한 혜홍스님(해인사 율원장)의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를 교재로 재가자들이 계율 받아 지니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으로써 재가가 살아가야 할 길, 출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았으니 모든 불자들은 적극적, 주체적으로 그 길을 따라 실천 수행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계율을 지킬 수 있다"는 혜홍스님의 말은 많은 불자들의 계율경시 풍조가 계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됨을 잘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두사찰의 계율 중심 강좌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계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미희(부산 주재 기자)

행자교육원 상설화 '가물가물'

사찰간 조율 안돼 조계종 을 사업계획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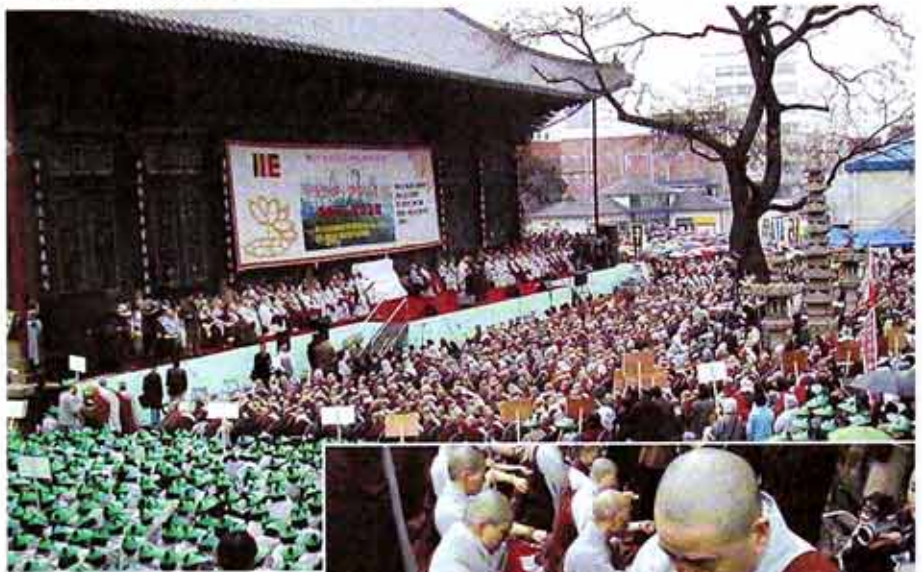
일부선 대안으로 중앙연수원 거론

조계종이 행자교육원을 설치한 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상설 교육도양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2기 행자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상설 도량 설치에 여전히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종단과 스님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행자교육원 상설화 문제를 아예 제외한 상태다.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지난 몇 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면서 "지도자급 스님들의 협조가 없는 한 행자교육원 상설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원은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을 종단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2000년에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 발족시키는 등 지난 5년여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행자교육원 설치 가능한 일부 교구본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월정사와 금

산사 말사 안심사는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으나 다른 사찰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풍도사 취운암과 해인사 등도 상설행자교육원 설치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내 집"에 설치될 경우 "큰 집"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른 사찰에 설치될 경우 종단 승가교육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상설행자교육원을 설치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찰 내 설치가 어렵게 되자, 상설행자교육원을 신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승가교육 관계자들은 교구본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연수원 건립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찰 내에서, 종단차원의 상설행

자교육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연수원을 건립해 행자교육원과 스님들의 각종 연수 및 재교육장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며 "이는 교구본사들의 협조를 끌어 내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장 무관

스님은 "실질적인 행자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21일인 교육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도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단과 스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ahn@buddhapa.com



대한 정부와 해당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찰수행환경을 침해하는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철나의 아리에 집착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1만여 참석대중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불교도들이 자연 문화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자"며 △북한산 관동 순환도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전면 백지화 △조계사 앞 고층건물 건축허가 취소 △비구니 스님 폭행 LG건설 관련자 문책 등 14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또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현장에서 죽은 나무들을 위한 천도재와 30여 불자 연비의

식을 통해 환경수호 의지를 다졌다. 대회가 끝난 후 스님, 신도 등 2천여명은 우정국로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하며 무리한 국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는 이날 대회 후 조계종 총무원, 유관사찰, 불교계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찰수호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권관기 기자 권관기@buddhapa.com

"수행환경 파괴사업 백지화"

불자 1만여명 범불교도 결의대회서 촉구

"정부와 자치단체는 환경보존정책을 최우선하여 시행하라."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대스님)는 5일 조계사에서 전국교구 본 말사, 강원 선방 스님,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열고,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에

대한 정부와 해당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찰수행환경을 침해하는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철나의 아리에 집착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1만여 참석대중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불교도들이 자연 문화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자"며 △북한산 관동 순환도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전면 백지화 △조계사 앞 고층건물 건축허가 취소 △비구니 스님 폭행 LG건설 관련자 문책 등 14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또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현장에서 죽은 나무들을 위한 천도재와 30여 불자 연비의

식을 통해 환경수호 의지를 다졌다. 대회가 끝난 후 스님, 신도 등 2천여명은 우정국로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하며 무리한 국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는 이날 대회 후 조계종 총무원, 유관사찰, 불교계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찰수호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권관기 기자 권관기@buddhapa.com

사령명 논설위원

차차석(동국대역정원 역경위원)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차차석 이기선

대만 불지사리 참관단 모집

한대불교는 대만 불교사찰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회교의 국보 범사사기모니 불지사리 참관 순례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례에서는 대만 최고 고승 성운 스님도 원전합니다.

- 일정: 3월28일(목)~4월1일(일) (4일5박)
- 참가비: 97만원(포함:대역, 공항세 / 단, 여권수수료는 별도)
- 접수 및 문의처: 이스탄불관광 02-779-4747
- 접수기간: 3월28일(목)까지
- 입금계좌: 서울은행 39008-07025204예금주: 계명세계여행

후원: 서울 불교신문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주관: 계명세계여행사, 이스탄 관광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주제: 법복 착용

1. 재가자의 법회나 여불사 법복 착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꼭 착용 ②가급적 착용 ③착용할 필요없다 ④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
2. 꼭 착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①더 경건한 마음이 되기에 ②삼보에 대한 예의이므로 ③의식을 정중하게 하기 위해 ④신도를 간 유대강화 ⑤기타
3. 착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①형식일 뿐이므로 ②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③값이 비싸서 ④개성이 없어지므로 ⑤기타

설문 참여: 3월 1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1호 9면에 실립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마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 명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민원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 등 소는 지옥 중생을 구하고 연인과 고향을 염하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중등 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현대연등제작사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중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제품 · 실용신인 등롱 · 의장출원

● 연등일 거르표어 (특허 제122168호) / 팔각형 실용신인 (특허 제098634호) 및 외장등용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친의 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nmail.net